낯섦과 끌림 그리고 어울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4 어울림보고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4 어울림보고서

낯섦과 끌림 그리고 어울림

낯섦과 끌림 그리고 어울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한 평등, 평화 공동체 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어울림보고서를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개요

보고 범위

본 보고서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본부의 운영 및 사업, 후원활동, 회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설인 이주여성쉼터의 활동 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의 보고기간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며, 최초 보고서로 과거 주요한 활동 성과를 포함하는 정성적·정량적 정보를 담았습니다.

작성 원칙

본 보고서는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4 가이드라인」과 서울시NPO지원센터의 「NPO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추가 정보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PDF파일 및 책자로 제공됩니다.

본 보고서는 서울시NPO지원센터 〈2014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Introduction

05 대표 인사말
06 단체 소개

Sustainability Management

11 비전 및 미션
12 이해관계자 참여

Program Effect

25 인권보호사업
28 교육문화사업
31 정책개발사업

Performances

35 후원자
38 사무처 사람들
39 동반자
40 환경

Appendix

43 재무제표
44 감사보고서
46 일하는 사람들

Introduction

01 대표 인사말
02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소개

01 대표 인사말

이주여성들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활동에
나침판이 되기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여인터)가 2015년으로 15년을 맞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여인터가 지탱해 온 힘은 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 동안 이여인터는 지구화 시대에 유목민처럼 자기 고향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 와 정착하는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한 해에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지구인구의 3%나 되는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이주를 하고, 아시아의 경우 이주를 떠나는 사람들 중 여성들이 70%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지금 약 55만의 이주여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는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오지만, 막상 한국살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종차별과 가부장문화에 의한 성차별로 인권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인권을 보장 받고 기 펴고 사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이여인터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 성, 계급이 달라도 평등하다는 기치아래 이주여성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으며, 선주민과 이주민이 다양성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이여인터의 지속가능한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잘 버티어왔지만 앞으로도 이여인터가 잘 존재하여 이주여성들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여인터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목표, 방향성 못지않게 이여인터의 구조, 생리가 적절한지, 인적, 물적 토대가 지속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이여인터의 2014 어울림보고서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의견을 내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보고서가 이주여성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하려는 이여인터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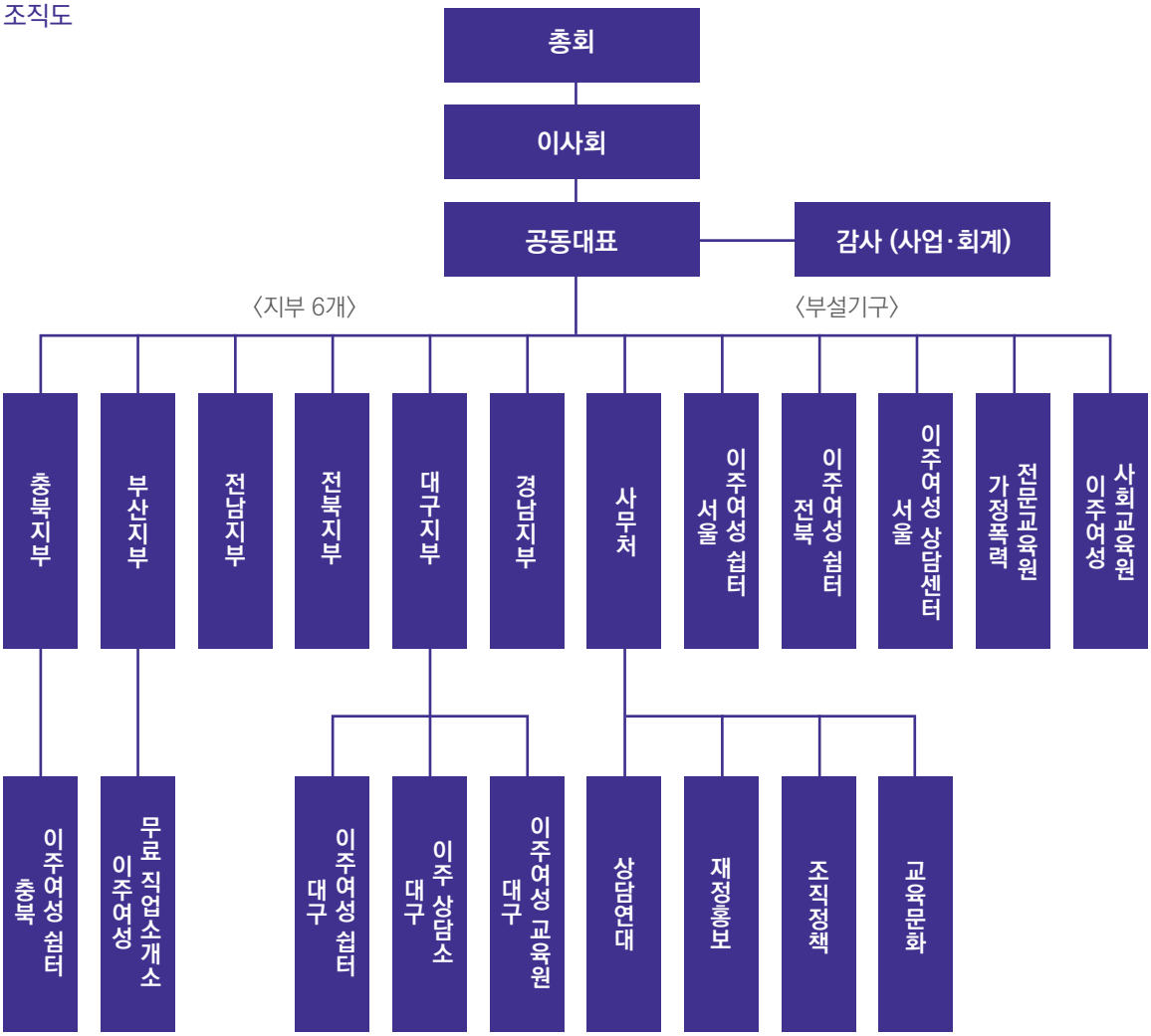
02 단체소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단체명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한국염, 김엘리, 강혜숙
설립일 2000년 10월 20일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 65길 16 SSPM 빌딩 4층

조직현황 6개 지부, 5쉼터, 1센터, 2교육원 (2014년 12월말 기준)
인력현황 사무처 4인, 상담센터 8인, 쉼터 4인
예산현황 255,623천원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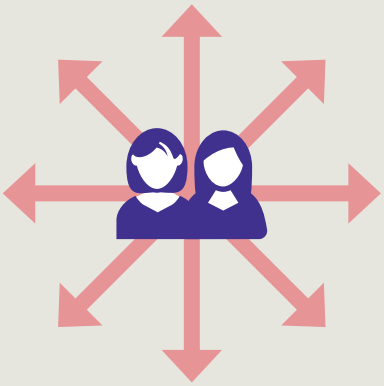
이여인터가 하는 일

이주여성 인권 정책 활동
정책 모니터링,
정책 제안과 대응활동

비영리 민간단체
전국 6개 지부,
상담센터, 5개 쉼터

당사자 역량강화
당사자 활동가 양성

이주여성 폭력피해 쉼터
몸과 마음을 다친 이주여성들이
쉬고 힘을 얻는 쉼터



통역/법률지원
체류, 노동 등 이주여성을
위한 통역 법률지원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 지원
연간 1500건의 상담 진행

연대와 협력
소수자 연대, 국제 연대

한국어 교육
인권을 주제로 한 한국어 교육

이여인터가 걸어온 길

2001
-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의 집" 설립
- 이주여성 모성보호 지원사업 시작
- 외국인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개소 및 사업 시작

2002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이주여성 상담 프로그램 시작
-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생활 매뉴얼 발간

2003
- "이주여성인권센터"로 명칭 변경
- 이주여성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이주여성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심포지엄 개최

2004
- 이주여성과 관련한 베이징+10 행동강령 평가 작업
- 제2회 심포지엄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 결혼"
- 이주여성 삶의 이야기 "오! 꿈의 나라에서" 출판

2005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단법인 인가 (여성가족부)
-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위탁 수행
- 이주여성인권을 위한 아시아 국제 포럼 주관 (13개국 참가)

2006
- 충북지부, 부산지부 설립
- 국제결혼 부부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시작
-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중개업 광고 반대 캠페인
- 이주여성 전문 상담원 교육 시작
-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 개소 (여성가족부 위탁)
-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방지를 위한 아시아여성전략회의 주최 (7개국 초청)
- 다문화가족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매뉴얼, "소통과 동행" 발간

2007
- 전남지부 설립
- 가정폭력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인가
-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유엔 UPR 보고서에 이주여성 인권개선을 위한 부문 참여
- "이주여성 우리의 이웃입니다" 캠페인 전개
- 정기 심포지엄 "다문화 트렌드 시대, 이주여성 정책과 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 개최

2008
- 전북지부, 대구지부 개소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반대 캠페인
-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적응과 폭력 사이에서 이주여성 인권을 찾다" 발간 및 심포지엄

2009
- 변방에서 주체로 이주여성 당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작
- 가정폭력 남편 살해 캄보디아 여성 구명운동 주관
-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 매뉴얼 "자신만만" 발간
- 인권으로 배우는 한국어 교재 발간

2010
- "이주여성 상생을 위한 주춧돌 놓기" 프로젝트 시작
- 이주여성들의 고 탓티황옥 추모 기자회견 "나도 그 베트남 이주여성일 수 있습니다"
- 필리핀 국제결혼 과정 및 귀국 후 사례 실태조사 실시
- 이주여성 상담소 울타리 개소

2011
- 차별금지법 제정 캠페인 시작
- 남편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한 이주여성 추모제 및 추모행진 주관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 결혼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경남지부 설립,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유엔 여성차별철폐회의를 통한 이주여성인권운동
- "힘내라 친구야" 프로젝트 시작

2012
- 이주여성이 직접 제안하는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
- 이주여성을 위한 위기대응 노트 발간 및 교육
- 이주여성 추모제 및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확보를 위한 캠페인
- "영주자격 전치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2013
- 인권을 기반으로 한 이주여성 당사자 전문가 그룹 양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 이주민 당사자가 제안하는 다문화정책플랜만들기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개소 (서울시 위탁)
- 결혼이민자 비자 강화 대응활동

2014
- 결혼이주여성 노동 실태조사
- 이주여성을 위한 성폭력상담원교육
- 이주여성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좌충우돌 길찾기
- 이주여성 추모제 "우리는 살해당하러 오지 않았다" 주관
- 정부의 다문화 정책 변화에 따른 이주여성 지원체계 방향 모색과 대응활동

Sustainability Management

01 비전 및 미션
02 이해관계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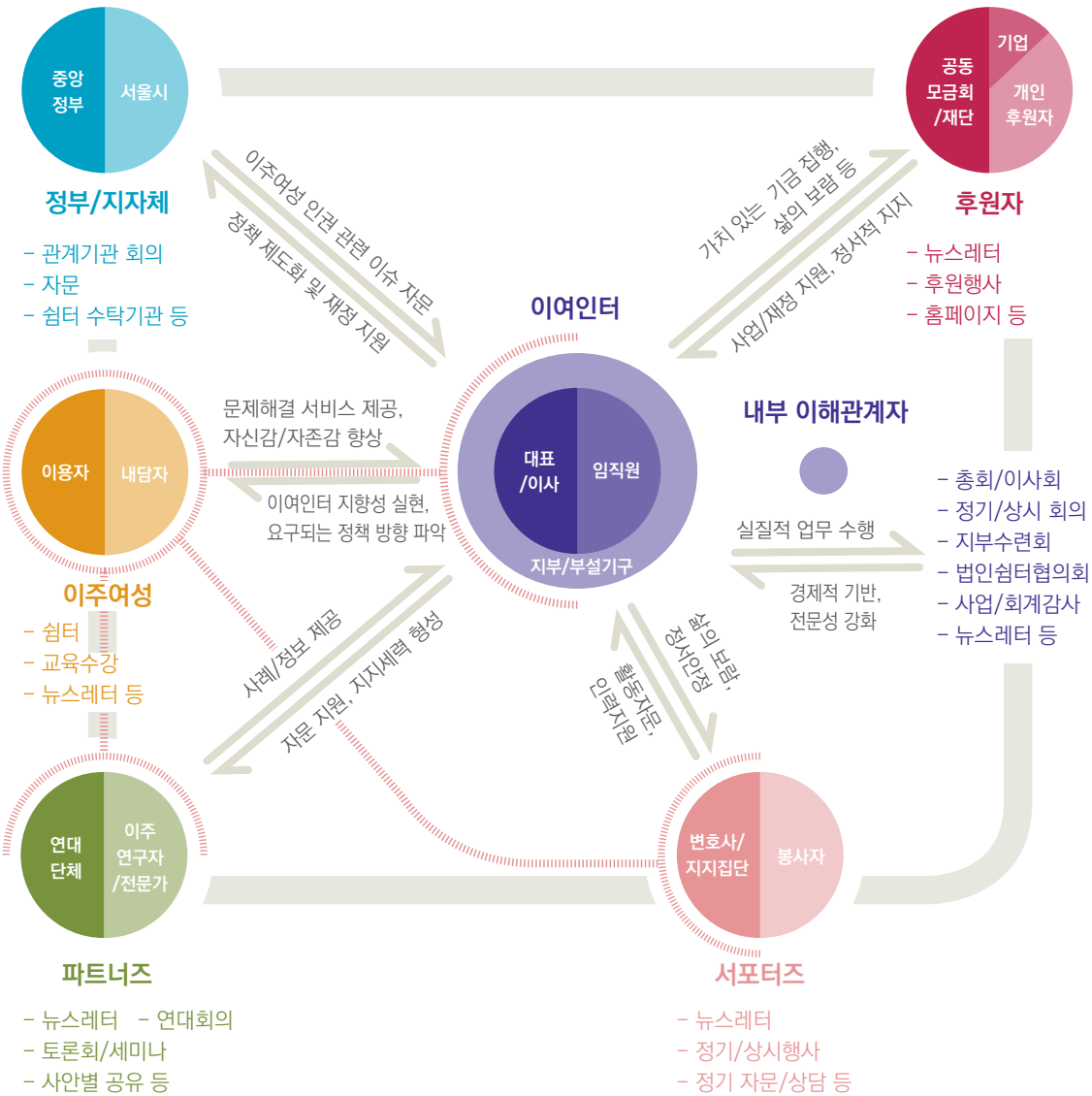
01 비전 & 미션

비전 vision

생명 평등 평화를 이주여성과 함께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을 통한 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생명존중,성인지적 관점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과
문화활동을 통한 한국사회의 적응지원,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평등하고 평화로운 지구촌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02 이해관계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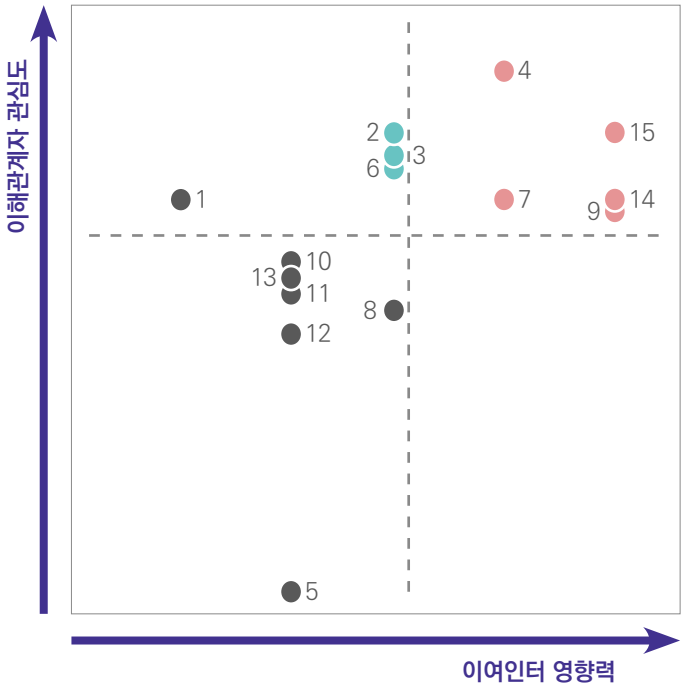

중앙 정부
서울시
정부/지자체
- 관계기관 회의
- 자문
- 쉼터 수탁기관 등
이주여성 인권 관련 이슈 자문
정책 제도화 및 재정 지원
공동 모금회 /재단
기업
개인 후원자
후원자
- 뉴스레터
- 후원행사
- 홈페이지 등
가치 있는 기금 집행, 솔의 보람 등
사업/재정 지원, 정서적 지지
이여인터
대표 /이사
임직원
지부/부설기구
이용자
내담자
이주여성
- 쉼터
- 교육수강
- 뉴스레터 등
문제해결 서비스 제공, 자신감/자존감 향상
이여인터 지향성 실현, 요구되는 정책 방향 파악
내부 이해관계자
실질적 업무 수행
경제적 기반, 전문성 강화
- 총회/이사회
- 정기/상시 회의
- 지부수련회
- 법인쉼터협의회
- 사업/회계감사
- 뉴스레터 등
사례/정보 제공
자문 지원, 지지세력 형성
연대 단체
이주 연구자 /전문가
파트너즈
- 뉴스레터 - 연대회의
- 토론회/세미나
- 사안별 공유 등
변호사/ 지지집단
봉사자
서포터즈
- 뉴스레터
- 정기/상시행사
- 정기 자문/상담 등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해관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자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도출된 이슈를 바탕으로 센터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이슈와 관련된 활동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여인터 중요 이슈

이여인터의 중요 이슈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이슈와 이여인터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심도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투명한 재정, 임직원 인권, 후원자 정보보호, 협력 및 연대, 이해관계자 인권존중이 중요 이슈로 도출되었습니다.



- 1.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및 의견 수렴
- 2.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의견 반영
- 3. 홍보 노력 및 후원자 관리
- 4. 투명하고 윤리적인 재정 및 외부 감사
- 5. 자원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
- 6. 안전하고 행복한 근로여건
- 7. 내부 인권존중 및 임직원 만족도 조사
- 8. 자원봉사자 관리 및 예우
- 9. 후원자 정보 보호
- 10. 효과적인 사업 관리 (발굴)
- 11. 효과적인 사업 관리 (수행)
- 12. 효과적인 사업 관리 (평가)
- 13. 효과적인 사업 관리 (단체 목적성 부합여부, 결과 보고)
- 14. 협력 및 연대/이니셔티브 참여
- 15.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과 보호

이해관계자 인터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에 이어 핵심 이해관계자 분들의 의견을 보다 깊이 있게 듣고자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이여인터를 둘러싼 핵심 이슈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또한 이여인터가 잘 하고 있는 점과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자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향후 이여인터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부활동가_최현진

〈이여인터 주요 이슈〉

1. 단체 홍보 노력 및 후원자 관리

이여인터와 각 지부들은 이주여성인권센터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이주여성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활동가들의 의기투합과 노력에 비해 외부의 관심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자원봉사자들도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인증(VMS) 때문에 활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몇몇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외국인 혐오 등 이주민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팽배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여인터는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하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회에 진짜 필요한 일이고 우리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주민 인권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많이 알려 우리 본부와 지부가 시민운동영역 중 이주민 영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활동을 더 넓은 범위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활동을 알리고 건강한 활동비 마련을 위해 뜻 있는 후원자를 많이 찾아야 합니다. 활동 자체를 돈으로 계산할 생각은 없지만 지속적이고 폭넓은 활동을 위해 다양한 후원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원자 발굴 및 관리가 전문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오지 못하고 있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대표들에게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원 홍보 방안과 기존의 후원자 관리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마다 지속적인 후원관리 방안과 후원자 발굴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내부 인권존중 노력 및 임직원 만족도 조사

이여인터는 다양한 일을 모두가 함께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차, 월차와 같은 휴식을 잊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활동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일에만 매진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활동가의 처우개선을 통해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느끼고, 단체 내에서의 인권존중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존중'은 활동가의 복지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이사회, 대표, 국장, 활동가들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듯 돌아가는 구조까지 아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논의 상황이나 단체 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 때는 반드시 원을 그리듯 의견이 나누어져야 하며, 여러 직책과 이름을 떠나 이주여성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모든 활동가들이 단체(본부 및 지부 모두)의 명확한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활발한 의견 교환과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3. 효과적인 사업 관리 - 수행

이주여성들을 위해 우리 단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이여인터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면 이는 발굴과 수행, 평가 세 가지 중 무엇보다 수행을 잘 해야 그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단체의 목적인 이주여성의 인권을 위한 노력 역시 이여인터의 중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여인터가 잘하고 있는 점 및 개선점〉

이여인터는 공동대표들과 함께 이주여성 관련 정책제안을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센터가 따로 분리되어 온전히 이주정책에 대한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들을 사회적 이슈로 끌어 내는 활동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이주민 정책, 사건, 사회 인식 개선 등 모니터링을 잘 해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본부와 지부가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일도 지부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있어야 이주여성들과도 함께 하는 활동이 많아지고 이주민들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부의 활동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이주여성인권보호활동에 대한 생각이 차이날 때가 있습니다. 본부 및 지부 수련회 때 전국 지부 대표,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같은 사건을 보는 눈이 다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부나 특정 지부의 견해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단체 내에서 다문화사회, 이주여성인권 활동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며 방향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부와 지부의 협력과 연대가 더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각자 단체를 이끌어 나가면서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부에 너무 많은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지부들이 좀 더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하고, 본부와 지부의 연대강화를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서포터즈_조숙현

〈이여인터 주요 이슈〉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 이사회 운영, 회의록 공개 및 의견 수렴 활동은 모든 조직의 기본이 되는 주요 이슈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여인터는 자체 사업보다는 다양한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사회적 지지가 밑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단체를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 노력과 후원자를 관리하는 이슈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활동가가 변경 없이 유지되어야 사업과 단체의 지속성이 유지되므로 활동가들의 근로여건 개선 이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조직 재정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외부 감시를 받는 활동은 후원자들의 신뢰 유지를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여인터가 잘하고 있는 점 및 개선점〉

이여인터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 활동가와의 연계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활동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활동가들이 인권활동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전문성을 갖고, 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여인터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여인터는 가정폭력상담원교육, 성폭력상담원교육 등 활동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세미나를 비롯하여 학습 모임을 꾸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여인터가 추진하는 여러 활동 성과를 정리하고 이해관계자분들께 알리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여인터의 성과를 정리하여 꾸준히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조직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포터즈_김미경

〈이여인터 주요 이슈〉

이여인터는 인권단체이므로 인권존중과 보호를 위한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회의 약자인 여성, 이주여성의 인권을 지지,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관심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후원자가 늘어나 단체의 살림이 넉넉해지면 경제적인 제약으로부터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가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개선은 활동가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커져 더욱 적극적,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여인터가 잘하고 있는 점 및 개선점〉

봉사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활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수업의 경우, 자신이 수업하는 시간에만 참여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혼자"라는 기분이 듭니다.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다른 봉사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어수업과 수업에 참석하는 이주여성 등 다문화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어 수업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봉사자들과도 일년에 한 번 정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 단체에서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권 관련 강의, 현장이야기 등을 들으면, 새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자신이 하는 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여인터가 작은 공간, 적은 인원으로 인권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특히 인권이 보호 받아야 할 현장에 직접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영역과 계층에서 재능기부, 후원 등의 형태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합니다.

이여인터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여인터는 한국어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매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각각의 일정이 맞지 않아 다 모이지 못할 때도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개강날 모든 교실이 함께 인사하고, 봄, 가을 소풍, 송년잔치를 통해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원봉사자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활동가_레티마이투

〈이주여성과 인권을 만난다는 것〉

저는 2005년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다른 국제결혼을 하는 이주여성들처럼 가족, 지인도 없는 낯선 한국에서 한국말을 배우나라, 결혼 생활을 하느라, 한국에서의 생활방식을 배우느라 많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문화 갈등도 힘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여성들은 다문화가족이고 서구에 온 이주여성들은 글로벌 가족으로 불리곤 합니다. 똑같이 이주해온 여성들을 등급을 나누는 이 사회가 저는 물론이고 이주여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트남 친구의 소개로 2006년 처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만나 한국어도 배우고 컴퓨터 교실도 다니고 문화 활동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센터와 인연을 맺고 한국어 학생으로 시작해 상담 통역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지금은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활동가로서 성장의 기쁨〉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로 인권 운동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니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취약한 지위와 가족 내의 불평등으로 인한 고통들이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이주여성들은 가족이 되어 한국에 살러 왔지만, 체류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려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센터에서 통역만 했습니다. 한번은 한 이주여성이 옆집에 사는 한국 언니의 도움으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찾아와 따뜻하게 맞아주는 활동가들을 만나고서야 꽁꽁 얼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떨어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이주여성 인권 활동 현장에서 통역원의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을 키워 이주여성 인권 현장에 뛰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활동가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 문제는 이주여성 당사자가 나서야 한다는 이주여성인권센터의 활동 목표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엄격하지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제가 힘들 때는 격려해 주는 동료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조금씩 저 자신을 키워가며 상담, 지원,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이주여성과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주여성인권센터의 지지와 동행으로 다른 이주 여성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갖게 될 때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저에게 꿈과 삶의 안내자, 지지자, 친한 친구이며 친정 가족과 같은 곳입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당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실천 활동을 통해 인권 의식이 높은 이주여성당사자 활동가들로 키워내고 했습니다. 활동가 한사람 한사람이 꽃이 되어 한국 인권 운동 현장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공부한 이주여성들 중 누구는 이주여성 자조모임의 리더가 되고 누구는 다양한 이주여성상담 현장에서 일하며, 또 아직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주여성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있습니다. 모두들 어렵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가들이 되었습니다.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친 이주여성들에게는 기댈 언덕이 되어주며, 가정폭력의 고통에 시달리는 이주여성에게는 따뜻한 포옹과 보금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주여성 스스로 힘을 길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이주여성들과 함께 인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이주여성들에게 불리하고 불평등한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때로는 정부에 맞서기도 하고, 이주여성들의 모임을 만드는데 힘이 되어 주고 다양한 정책 제안 활동과 한국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거친 사람이면 이주여성이든 한국여성이든 나이와 출신국을 막론하고 이곳에 정이 듭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저는 9년간 변치 않는 한 마음으로 이주여성 인권 현장에 설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시골 소녀이자 결혼이주여성인 저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인연을 맺고 인권을 만나 인권 활동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힘 있는 그런 이주여성이 되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과 선주민 여성, 이주여성과 이주여성, 이주여성과 인권이 만나는 징검다리가 되어 이주여성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통해 이주여성들이 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갖게 되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차별을 하지 않고 평등한 관계에서 함께 인권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기대합니다.

파트너즈_김영희

〈이여인터 주요 이슈〉

이여인터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다음 3가지 이슈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단체를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 노력 및 후원자 관리
2.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의견 반영
3.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및 이사회 운영, 회의록 공개 및 의견 수렴

〈이여인터가 잘하고 있는 점 및 개선점〉

이여인터에 호의를 갖고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조직이 좀더 개방적이었으면 합니다.

이여인터는 이주여성 당사자 지도력을 양성하고 그 분들을 네트워킹 하는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템에 대해 철학을 보다 가다듬고, 좀더 쉽게 대중적으로 홍보하면 좋을 듯하고 무엇보다 조직과 사업 아이템이 미래지향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여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여인터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여인터는 사무처의 문을 개방하여 더욱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인권의 원칙을 지키면서 시혜적이 아닌, 상호교환적 활동을 지향하고 노력한 결과, 이여인터가 새롭게 시도한 프로젝트나 사업은 타 기관, 정부 영역에서 빌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여인터는 시민운동영역의 많은 부분이 정부영역에 흡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권분야를 발굴하고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rogram Effect

01 인권보호사업
02 교육문화사업
03 정책개발사업

주요 성과

성폭력 상담원교육 수료

2006년 **23**명
2014년 **11**명 이주여성
5명 선주민
22명 강사

가정폭력 상담원교육 수료

2006년 **22**명
2009년 **24**명
2010년 **15**명
2011년 **21**명
2012년 **21**명
2013년 **17**명

이주여성 인권전문가 양성과정

2013년 **102**명
2014년 **85**명

한국어 교실

2010년 **258**명
2011년 **142**명
2012년 **62**명
2013년 **99**명
2014년 **65**명

성폭력 피해자 혼인무표 판결사건 재판 지원을 위한 탄원서 (2014)

100명 10명 1명

2469명 서명

주요 사업 Overview

이주여성인권보호를 위해 아웃리치, 구조, 옹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쉼터,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 활동은 이주여성을 구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주여성 현장활동입니다.
당사자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통역, 상담을 맡는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여성법률지원단과 자원 변호사 그룹과 함께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원교육, 성폭력상담원 교육, 귀환 여성을 위한 베트남
전문상담원양성교육 등은 이중 언어를 바탕으로 당사자 활동가들이
현장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이자,
인권보호사업입니다.

일상사업으로 진행되는 한국어, 공동체, 건강지원사업은 이주여성들이
인권센터를 찾아 활용하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정책 사업은 정부정책과 제도가 젠더인권지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위해 주요 기관, 당사자 그룹, 이주단체,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입니다.

이 모든 활동은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가능합니다.
후원자들을 위한 소식지, 뉴스레터를 더욱 알차게 꾸며
활동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1 인권보호사업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인권보호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이주여성의 권익신장을 가시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담과 쉼터를 통한 현장활동을 하는 한편 정부에 이주여성 인권지향적 정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연대활동을 통해 인신매매성 아시아 여성의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쉼터 운영	인권문제 저변확대	대외 활동
● 인권지향적 상담 ● 전국 6개 쉼터를 통한 폭력 피해자 보호 ● 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원스톱 상담체계 구축 ● 법인 쉼터 공동 이주여성쉼터 매뉴얼 작성	● 이주여성인권전문가 양성 ● 이주여성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 이주여성 위기대응능력 향상 ● 이주여성 현장 활동 지원	● 이주여성 성폭력 대응활동 ● 귀환여성 실태 현지 조사 ● 귀환여성을 위한 현지 상담원 양성교육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 2013~2014)

이주여성 인권 문제의 변화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이혼, 가족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인권센터의 지원활동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에 이어 성폭력사건이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주, 노동이주, 유학생 등 모든 여성의 문제입니다.

중개업 또는 배우자에 의한 위장결혼은 한국인배우자 또는 이주여성 모두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정책 모니터링

2013년 제2차 외국인 기본 정책과 제2차 다문화 가족 기본 정책이 시작되면서 다문화 가족 범위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배우자 귀책사유로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횟수 제한 완화를 통해 이주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정보콜센터 통합에 따라 축소되는 긴급전화 기능의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NGO의 많은 역할을 정부가 수행함에 따라 NGO의 활동영역이 축소되었지만, 인권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활동을 발굴하고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쉼터운영을 통한 인권보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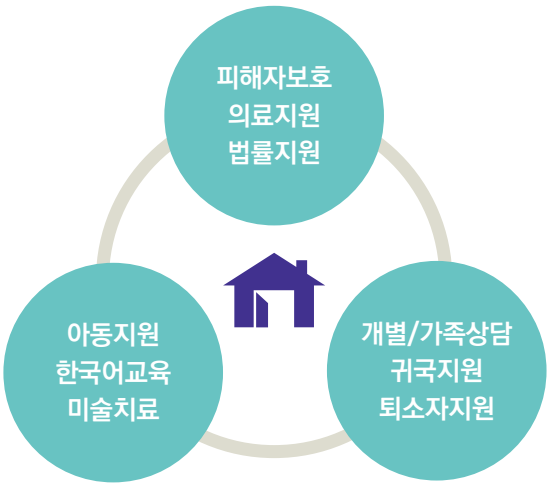
국내 최초 이주여성쉼터 운영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01년 국내 최초로 이주여성쉼터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전북(법인 직영), 충북, 대구(지부 운영), 목포(2014 신설)에, 전국 5개의 이주여성쉼터를 운영,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부설 한울타리 쉼터는 모든 위기 이주여성과 자녀를 위한 단기 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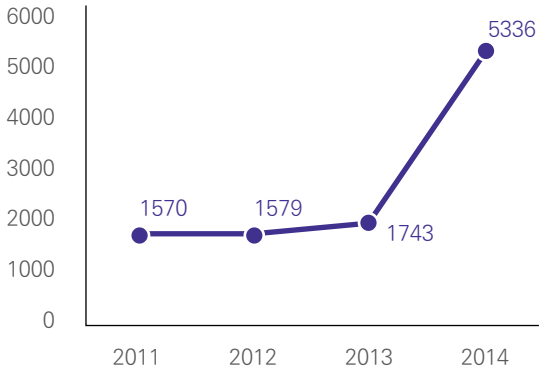
법인 쉼터협의회를 구성하여 쉼터 운영과 지원활동에 대해 서로 소통하며 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해 통일된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자립지원기금 (에쓰오일주식회사 지원)으로 보증금, 집기, 통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모자 가정의 안전망 구축, 퇴소 후 자립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국 쉼터 최초로 이주여성상담원을 상근 활동가로 채용하는 등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연간 상담 건수 추이



2000년부터 진행해온 이주여성상담을 2013년부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로 확대하고, 상담 부문의 전문화와 지속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서울시 다문화가족 안전망구축 프로젝트 위탁)

이중언어가 가능한 이주여성상담원 5인이 상주하며 이주여성인권보호와 성평등적 가족갈등해소를 위한 둥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상담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슈퍼비전과 교육을 정기화하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주여성법률지원단과 상담 연계로 법률 지원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 대응활동

가정폭력 남편살해 캄보디아 여성 구명운동 (2009)

임신상태에서 남편의 계속된 구타와 폭력을 당하던 여성이 우발적으로 남편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에 따른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고 탓티황옥 추모와 죽음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나도 그 베트남 여성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8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던 남편에 의해 살해된 고 탓티황옥(20세)을 추모하는 이주여성들이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없이 진행되는 결혼중개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한 이주여성 추모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2011)

남편의 폭력을 피해 쉼터에 입소해 있던 여성이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남편의 칼에 무참히 찔려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출산한 지 19일 된 아기가 옆에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한 고 황티남 사건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죽음이 계속되는데 분노한 이주여성, 시민들이 함께 거리를 행진하며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호소했습니다.

이주여성 추모제 "이주여성이 죽지 않을 권리" (2012)

2012년 한국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온 이주여성이 연달아 남편의 폭력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빗속에 치루어진 추모식에서 이주여성들은 '죽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를 구축하였습니다.

사돈 사주 이주여성 강간 사건 대응 활동 (2013)

사돈 집에 놀러간 베트남 여성 강간사건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요청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경정신과 담당의와 피해자 딸 면담, 탄원서 연명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협의 의사를 확인한 후 중재, 귀국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축산업 여성이주노동자 성추행 사건 공동 대응 활동 (2013)

캄보디아 출신 여성농업 노동자 3명이 임금체불, 과도한 노동으로 사업장 이동을 요구하며 지구인의 정류장(안산) 쉼터에 머물던 중 쉼터로부터 집단 상담을 의뢰 받았습니다. 사업주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확인하고, 임금 과소 지급, 성추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이동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 혼인 취소 사건 공동 대응 활동 (2014)

결혼이주로 온 이주여성이 시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혼인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한편,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등 여론에 알려, 이주여성을 변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주여성 추모제 "우리는 살해당하러 오지 않았다"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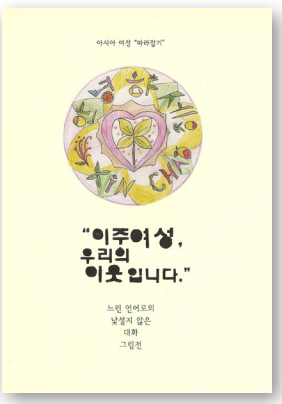
2014년 한 해에만 7명 이상의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범죄피해로 숨졌습니다. 충격적인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사회의 원인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가정폭력, 여성폭력이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주여성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촛불추모제를 진행하였습니다.

02 교육문화사업

교육문화사업은 크게 이주여성 역량강화와 이주여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일상사업이 있습니다. 이주여성 당사자가 이중언어라는 장점과 함께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일상사업은 한국어교육, 문화교육과 체험활동, 건강검진, 봄가을 소풍, 송년잔치, 커뮤니티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진행한 교육사업은 다양한 교육모델을 만들고 가장 풍부한 이주여성 아카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역량강화 사업은 인권보호활동과도 공유되는 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원교육, 성폭력상담원교육, 인권전문가양성교육, 활동가 세미나 및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한 인권감수성을 키워나가기 위해 꾸준한 교육과 수퍼비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원교육은 2008년부터 매년 20명 안팎의 수강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이주여성상담원으로 활동하는 분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폭력상담원교육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중언어상담원이 시급히 필요함에 따라 2014년 새로 시작하였고 17명 수강생 전원이 수료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활발히 활동하게 되면서 한국어 교실 인원이 줄었지만, 수강기준 등의 까다로운 문턱이 없어 꾸준히 찾아오는 이주여성들이 많습니다. 2013년부터 쉼터 입소자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퇴소시 한국어로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모임은 초창기 한국어 교실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거치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인연을 맺은 이주여성들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센터를 찾아와 고향 친구들과, 다른 나라 친구들과 소소한 모임을 갖고, 송년잔치를 통해 한 해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 문화활동

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한국어교육

설립 초기 한국어 교실은 한학기 100여명이 몰릴 정도였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복지관 등 한국어교육 기관이 많아지면서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교사들의 헌신과 접근의 편리성, 언제나 교육 참여가 가능한 열린 교실의 편안함 때문에 열악한 시설과 재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20여명의 자원봉사교사로만 이루어진 한국어 교실은 쉼터 입소자들을 중심으로, 한 학기가 끝날 때는 최소한의 의사표시가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센터에 다닌 학생들을 위하여 글쓰기를 포함한 고급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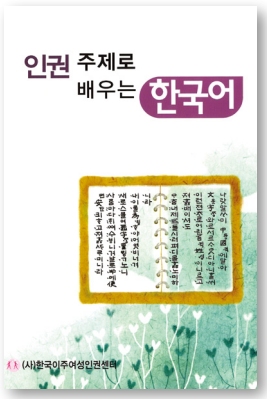
한국어 가정방문 교육

이주여성과 자녀를 위한 가정방문 교육은 2003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다정동아리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1로 짝을 맺어 20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정방문 교육을 통해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이주여성은 한국어를 배웁니다. 이주여성과 한국사회의 젊은이가 서로 이웃이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주제로 배우는 한국어

이주여성들이 한국어 교육이나 정착지원교육을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누릴 권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국어교육과 어우러지는 인권교육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센터의 경험을 살려 인권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문화활동

봄소풍, 가을운동회, 이주민의 날 기념 송년잔치 등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공동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만들기, 문화여행 등 소모임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들의 취미 살리기, 향수 달래기, 다른 문화 공유 등의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역량강화 사업

- 이주여성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시작 (2006)
- 이주여성 365일 멘토링교육 시작 (2008)
- “변방에서 주체로!” 이주여성 당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작 (2009)
-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 매뉴얼 “자신만만” 발간
- “이주여성 상생을 위한 주춧돌 놓기” 프로젝트 (2010)
-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 매뉴얼 “자신만만2” 발간 (2011)
- 이주여성이 직접 제안하는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 진행 (2012)
- 이주여성을 위한 위기대응 노트 발간 및 교육 (2012)
- 인권을 기반으로 한 이주여성 당사자 전문가교육과 인권지킴이 활동 전개시작 (2013)
- 이주민 당사자가 제안하는 다문화정책플랜만들기 (2013)
- 이주여성을 위한 성폭력상담원교육 (2014)

이주여성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좌충우돌 길 찾기 (2014)

01

02

03

04

01 2014 인권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해 이주여성 당사자의 인권, 한국사회를 사는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였습니다.

02 2013년 가정폭력상담원교육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주여성들과 선주민 활동가들이 이주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3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부설기구 활동가들은 매주 함께 모여 상담을 하고 인권활동을 하기 위한 공부를 지속하며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04 2014년 시작된 성폭력상담원교육은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당사자 활동가들을 교육하였습니다.

03 정책개발사업

이여인터의 활동역사는 정책개발사업과도 일치합니다. 초기에는 이주여성의 모성보호와 최소한의 인권침해 사안에 집중했다면 체류권 확보와 교육의 시기를 거쳐 최근에는 당사자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을 강화하며 이주여성의 진정한 자립을 위한 활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왔고 일부는 반영되었고 일부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주여성 정책심포지엄

이여인터는 이주여성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이주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해마다 정기 정책심포지엄을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이주여성의 문제와 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대안들을 정부에 제안하여 정부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03 “이주여성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2005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인권 국제포럼
2006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방지를 위한 아시아여성전략회의
2007 다문화트렌드 시대, 이주여성정책과 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
2008 적응과 폭력 사이에서 이주여성 인권의 현주소를 묻다.
2009 이주여성 함께 울타리 넓히기
2010 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2012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대로 좋은가?
2013 이주민 당사자가 제안하는 다문화정책플랜
2014 결혼이주여성의 노동경험 분석: 노동의 경합양상 중심으로

01 2014.12.29 서울여성플라자
〈결혼이주여성의 노동경험 분석
: 노동의 경합양상 중심으로〉

02 2012.11.30 국회 귀빈식당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대로 좋은가〉

03 2014. 8.13. 국회 의원회원
〈이주여성 지원체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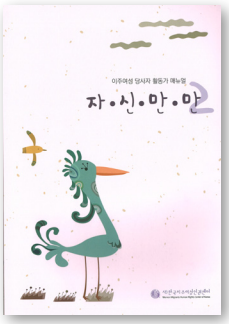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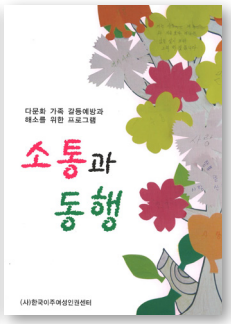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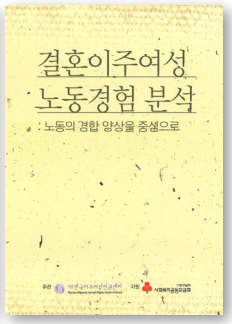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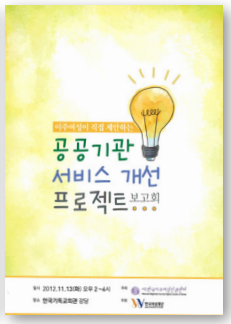
이여인터 발간 자료

- 국제결혼가정 생활 매뉴얼 제작 (2002)
- 외국인이주여성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집 “나 몸의 주인은 나 (몽골/네팔/영어, 2003)
- 국제결혼 자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집 (2003)
- 이주여성 삶 이야기 “꿈의 나라에서” 사진 화보집 (2004)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발간 (초급, 2005)
- 이주여성 생활·법률 매뉴얼 “이런 건, 궁금해요” (2005)
- 국제결혼가정 갈등예방과 해소를 위한 매뉴얼 “소통과 동행” 발간 (2006)
- 이주여성 그림집 “느린 언어로의 낯설지 않은 대화 1” 발간 (2007)
- 아시아 여성문화 이해 매뉴얼 “아시아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말 걸기” (2008)
-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강사 매뉴얼 “국제결혼 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2008)
- 이주여성 삶 이야기 “느린 언어로의 낯설지 않은 대화2” (2008)
- 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적응과 폭력 사이에서” (2008)
-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 매뉴얼 “자신만만” (2009)
- 베트남 국제결혼 가족이야기 “차이를 노래하라!” (2010)
- 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2010)
-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 매뉴얼 ”자신만만2” (2011)
- 이주여성을 위한 위기대응노트 발간 (2012)
- 이주여성이 직접 제안하는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 (2012)
- 이주여성이 제안하는 다문화정책플랜만들기 (2013)
- 결혼이주여성노동경험 분석 (2014)









Performances

01 후원자
02 사무처 사람들
03 동반자
04 환경

01 후원자

이여인터는 NGO CMS 서비스를 통해 후원회원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후원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회원정보 접근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나아가 회원정보 보호, 서비스 강화를 위해 후원자관리 및 보호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에 등록하여 후원자들이 연말정산 등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님의 후원소식은 매월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으며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격월로 온라인 소식지를 후원회원님께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발송 일정을 제대로 지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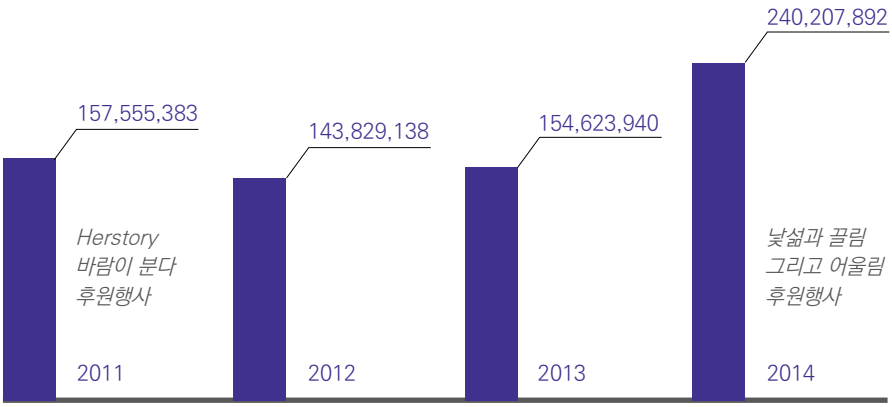
후원분야

일반후원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계좌로 직접 송금

CMS 후원 : CMS 신청서를 작성, 금융결제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

물품후원 : 센터운영과 쉼터 이용자를 위한 물품 후원

자원활동 : 한국어 교사, 상담지원, 통·번역, 센터 일상업무 도움,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관리



최근 4년 후원모금액 (단위:원)

후원자들

개인기부

강동완, 강성의, 강성의, 권태철, 강철원, 강혜숙, 강혜정, 길형준, 김경은, 김미경, 김민정, 김순애, 김엘리, 김우정, 김은재, 김정민, 김 진, 김현미, 나선정, 나영희, 남인순, 동애화, 모경순, 박세실, 배현주, 안용희, 안은경, 유임숙, 유지수, 유해미, 유효종, 이맹열, 이명경, 이순애, 장명숙, 전순란, 전효재, 조은아, 최진영, 최현정, 한가은, 한국염, 허오영숙, 홍계양, 홍매화

단체기부

(재)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재)한국기독교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WORKING AC, 동원교회, 발산교회, 법무부, 새밭교회여신도회, 서울남여신도회, 연대대학교회, 이화여대교목실, 잔쿠라아트스페이스 (예술가 모임 후원), 재독여신도연합회헌금, 청암교회, 하늘품교회, 한강교회, 향린장년여신도회, 해피빈

기업기부

㈜에쓰오일, ㈜국전약품, ㈜윈스, 코우치코리아리미티드유한회사, 허스트중앙유한회사, 신한은행신설동지점, ㈜한신항공

CMS 기부

YOO JISU KLAIRE, 강성의, 강성혜, 강영옥, 강완모, 강지연, 강효숙, 고영수, 고영찬, 고종식, 권미경, 권미주, 권신애, 권오동, 권유진, 권태승, 권태철, 권현희, 길지현, 김경자, 김기남, 김나연, 김남경, 김명남, 김보라, 김석수, 김석찬, 김선영, 김설화, 김성기, 김세화, 김수연, 김엘리, 김엘림, 김영수, 김영옥, 김영완, 김영진, 김올튼, 김원화, 김은아, 김은영, 김은재, 김은주, 김은지, 김은형, 김이영, 김인자, 김인형, 김인혜, 김성훈, 김 일, 김정은, 김정임, 김정희, 김지은, 김진경, 김진희, 김찬록, 김철형, 김현미, 김혜미, 김희은, 노미향, 노재훈, 류유선, 문선영, 문화령, 박경하, 박금숙, 박금옥, 박덕진, 박미성, 박선이, 박성희, 박세라, 박예지, 박준범, 반 다, 백미랑, 보얀델게르, 서은희, 서정명, 서환원, 설경옥, 성 염(전순란), 성장환, 성지은, 소라미, 솜재이, 송 경, 송옥진, 송혜진, 신순애, 신영철, 신지연, 안경자, 안광훈, 엄인숙, 엘 샤, 오나경, 오지희, 옥은정달이슬, 우복남, 원기정, 원선아, 원유진, 원혜욱, 원희석, 원희영, 유경란, 유미선, 유세영, 유연희, 윤자선, 이경숙, 이경숙, 이기문, 이명기, 이명주, 이명진, 이봉우, 이상옥, 이상훈, 이성희, 이소영, 이수희, 이순화, 이숭리, 이승건, 이영숙, 이영애, 이유정, 이윤정, 이은선, 이은숙, 이은숙, 이정배, 이정희, 이종민, 이종원, 이주원, 이지영, 이지오, 이지현아영창, 이철우, 이태주, 이하영, 이해미, 이해응, 이현서, 이현석, 이현숙, 이혜숙, 인금란, 인미란, 임옥기, 장철기, 전광식, 전영미, 전은경, 전창배, 전태규, 전호식, 정금자, 정다영, 정덕숙, 정명순, 정선애, 정영자, 정유신, 정지영, 정진실, 정철호, 정현채, 정형민, 정환옥, 조미진, 조세은, 조수정, 조원철, 조인섭, 조현진, 조혜진, 주묘희, 주이슬, 지미혜, 진가희, 차수진, 초웁찬피런, 최규삼, 최나래, 최민영, 최성호, 최수명, 최승우, 최영숙, 최완영, 최의팔, 최종만, 최향숙, 트립티, 표영미, 하승희, 한가은, 한국염, 한기숙, 한미라, 한선희, 한수연, 한아람, 한아름, 한형주, 홍도현, 홍보연, 홍향임, 황수철, 황영수, 황인영, 황정혜, 황지연

물품지원

LG생활건강, 아름다운가게

힘내라, 친구야!

한신항공은 2011년부터 베트남 이주여성 고향방문 기회 및 폭력 피해 베트남 여성에 대한 출국 지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생존자, 이주 후 3년 만의 첫 고향방문 등 월 1명씩 항공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8명, 2014년 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S-OIL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사회 복귀 지원

㈜에쓰오일은 2013년부터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사회 복귀' 지원을 통해 쉼터를 퇴소하는 이주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가전제품, 침구류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LLE COACH NEW YORK 비정상회담

매년 쉐어 해피니스 (Share happiness) 행사를 펼치는 엘르코리아는 코우치리미티드, JTBC비정상회담팀과 함께 진행한 2014년 쉐어 해피니스 행사 후원금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기부하였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후원의 밤
“낯섦과 끌림, 그리고 어울림”

일시 : 2014.10.16.
장소 : 이화여대 이삼봉홀

개인

Bui Cat Ha, huyen, LIHAI, LIOLGA, QIU J, TRUON, YANG SANGGO, YANGXIN, YOO JISU KLAIRE, 강동완, 강복정, 강선경, 강성의, 권태철, 강윤삼, 강을영, 강진영, 강형덕, 강혜정, 강효주, 고은경, 고종식, 곽석희, 권미경, 권미혁, 권영숙, 길형준, 김가은, 김경연, 김경은, 김경희, 김금순, 김나열, 김남석, 김동희, 김둘순, 김미경, 김미희, 김상임, 김상희, 김선실, 김세화, 김순남, 김애화, 김엘림, 김연주, 김우정, 김윤숙, 김은영투어플래닛, 김정선, 김지선, 김채연, 김현미, 김혜숙, 김화희, 김희헌, 나 리, 남기신, 남승연, 남홍실, 라현욱, 리옌롱, 리우팡, 리홍옌, 문경란, 문소정, 문효은, 박 건, 박기남, 박선영, 박선희, 박수연, 박언주, 박정호, 박지현, 박희진, 방태진, 배외숙, 백미랑, 복현미, 성미라, 성창제, 손실장, 송명애, 송영숙, 송영자, 송혜진, 신은주, 심정란, 안상설, 안상임, 안수경, 안순화, 안용희, 양대근, 양미강, 양세진, 여혜숙, 예따람, 오세훈, 옥명화, 왕봉화, 왕혜연, 외노협, 원선아, 위은진, 유건재, 유경남, 유광주, 유근숙, 유명희, 유문남, 유복임, 유은경, 윤기획, 윤미향, 윤은혜, 윤정숙, 응앤티투짱, 이계순, 이근영, 이김보라, 이명경 , 이명선, 이명자, 이문우, 이문한, 이미경, 이상덕, 이상용, 이석우, 이석호, 이선경, 이소훈, 이수진, 이수화, 이수희, 이숙희, 이숭리, 이애은, 이영미, 이유진, 이은영, 이종필, 이주원, 이지선, 이현숙, 이형순, 이혜숙, 이혜진, 이홍란, 이효정, 임동숙, 임성애, 임수경, 임수연, 임순영, 임창헌, 장명숙, 장상, 장영식, 장진원, 전순란, 전영미, 전영은, 전호식, 전효상, 전효재, 전훈남, 정다영, 정미현, 정승희, 정시영, 정은우, 정인섭, 정인숙, 정찬두, 정창혜, 정해선, 정현백, 조난영, 조숙현, 조영란, 조영미, 조윤희, 조은하, 조인섭, 조주은, 조지영, 주은진, 진민경, 진원용, 진현정, 차인순, 최성지, 최소영, 최수연, 최영옥, 최윤지, 최은경, 최은자, 최의단, 최준수, 크리스틴준박, 탁창옥, 한가은, 한국염, 한국이주, 한선희, 한수복, 한혜주, 허오영숙, 현성숙, 무명씨1, 무명씨2, 홍계양, 홍매화곽중빈, 홍인기, 홍종혜, 황선영, 황성숙, 황수철, 황정혜, GUZMANCH, VUTHI, 김숙임, 박연희

단체

(사)한국여성노동자회, (사)희년의집, (재)한국건강가정진, (종)정읍신광교회, 경복교회, 경서교회, 공감,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 다문화어린이도서관너머서, 두레방, 마리이주여성쉼터, 신촌논지당, 발산교회, 배화여고 67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디딤터, 성수삼일교회내일의집, 쉼터협의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양성평등교육원,여성가족부, 여성단체연합, 여신도회 서울남연합회, 여신도회 서울북연합회, 여신도회서울연합회, 연세대학교회, 아시아위민브리시 두런두런, 옥천제일교회, 원불교외국인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민건강협회, 인천여성의전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주민교회, 청암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향린교회, 효동교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기업

대종휠타산업, 신한은행신설동지점, 왕성전력(박성민), ㈜동원개발, ㈜비즈인사이트, ㈜이앤아이월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프로젝트 지원기관 (최근 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서울시 NPO 지원센터 / 아름다운가게 / 아름다운재단 / S-OIL /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Jongno Council on Social Welfare / Let's Run 한국마사회 / 여성가족부 / 서울특별시 / 5·18기념재단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02 사무처 사람들

사무처장 **허오영숙**

이주여성들을 만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기에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재밌고 보람찹니다. 나의 성장만큼이나 이주여성 역량강화와 성장에 관심이 많지만 하는 일은 '주어지면 아무거나' 합니다. 센터가 이주여성 운동 단체로서의 감수성이 예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가 **안은경**

일을 하며 항상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일을 잘 하고자 하는 베트남에서 온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어 교실, 쉼터 지원, 고향방문 비행기 티켓을 지원하고 행복과 힘을 찾아주는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인권조직팀 **한가은**

나는 잘 웃는, 베트남어로 가을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가은입니다. 사람에 대한 정이 많아 함께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는 이주여성과 선주민을 모아 이주여성의 인권 개선을 이루는 슈퍼우먼이 되려고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교육행정팀 **송옥진**

교육 프로그램과 사무실 살림을 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비행기 안타도, 사무실에서 날마다 세계여행을 합니다. 깜빡하는 버릇 때문에 실수가 많지만 살림의 왕이 되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인권활동을 하는 센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단체 내에서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활동가와 이용자들을 배려하여 말의 속도와 단어 선택에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이나 공동체 모임 중에는 가정폭력쉼터 입소자를 배려하여 개인신상을 묻지 않도록 교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여인터는 모든 활동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원교육, 성폭력상담원교육 등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전문가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센터와 부설기관 활동가를 중심으로 학습 모임을 조직하고, 근무 외 시간에도 여러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 센터와 부설기관, 연대활동 단체 활동가 등 15명 정도가 총 32회의 세미나 및 인권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연대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인권문제에 대응하는 등 현장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와 사무처장은 외부강연활동을 통해 한국사회 인식전환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센터로 이주여성의 인권을 문의 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응대하는 것도 사무국 활동가들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03 동반자

여성단체와 이주단체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이주여성의 권리 확보와, 이주민 인권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주, 여성, 인권, 소수자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별로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권리확보와 폭력 근절 등 다양한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2012년 이주여성사망사건을 계기로 결성되어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체류권 확보, 보호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은 한국 내 여성폭력에 반대하는 여성, 인권단체의 연대회의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도 출범 초기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주 · 노동운동협의회
Member of MFA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반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산업연수제 철폐, 인종차별철폐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주여성법률지원단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이 필요한 이주여성에 대해 적극적인 변호활동으로 이주여성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체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종차별공동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2006년 성적, 인종차별적 언행을 국내 최초로 인종차별소송을 통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또한 인종, 인종차별, 성인종차별 알아보기 자료를 출간하였습니다.

04 환경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제조생산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지 않아 관련 환경성과는 해당이 없으며, 사무실에서의 환경실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

개인머그컵을 사용하고 도시락을 싸오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면지, 집기 등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 방문자를 위한 종이컵을 사용 중에 있으나 2015년부터 환경 개선을 통해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 노력

이여인터가 입주해 있는 낡은 건물은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창문과 외벽 단열이 잘 되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2015년 초,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방풍조차 잘 되지 않는 벽과 창을 개선하여, 전열기 사용을 줄였습니다.
또한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사무처와 교육장의 전등을 모두 LED 등으로 교체하고 실내 적정온도 지키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창문 단열 등이 부족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appendix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일하는 사람들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7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회사명 : (단위 : 원)

과 목	제 7(당)기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47,726,435
(1) 당 좌 자 산		47,726,435
현 금		47,726,435
(2) 재 고 자 산		0
Ⅱ. 비 유 동 자 산		237,340,000
(1) 투 자 자 산		0
(2) 유 형 자 산		212,340,000
건 물		205,000,000
비 품		7,340,000
(3) 무 형 자 산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5,000,000
임 차 보 증 금		25,000,000
자 산 총 계		285,066,435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20,000,000
단 기 차 입 금		120,000,000
Ⅱ. 비 유 동 부 채		0
부 채 총 계		120,000,000
자 본		
Ⅰ. 자 본 금		111,467,980
자 본 금		111,467,980
Ⅱ. 자 본 잉 여 금		0
Ⅲ. 자 본 조 정		0
Ⅳ.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0
Ⅴ. 이 익 잉 여 금		53,598,455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53,598,455
(당 기 순 이 익)		
당기 : 51,676,999 원		
전기 : -9,629,850 원		
자 본 총 계		165,066,43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85,066,435

사업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귀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2014년도 사업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귀 센터의 지난 1년간의 사업 내용, 업무일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귀 센터는 이주여성인권보호사업, 이주여성교육문화사업, 이주여성역량강화사업,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조사 등 정책 사업, 부설기관 및 지부 운영 지원 등 조직사업, 후원행사 등 재정사업, 이주 및 젠더 이슈 연대 사업, 홍보 후원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적은 인원으로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대표, 사무처장, 활동가의 한해가 얼마나 고단했을까 짐작하고도 남을 만큼 수행하는 사업이 많고 그 내용 또한 알찼습니다. 진심으로 지난 한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에서 향후 귀 센터의 사업 및 업무 수행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첨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부와 지부가 연대하여 일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본부와 지부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활동가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는 현실이지만, 차후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부의 활동가 수급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 지역에 있는 대학,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범위 확대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이주여성인권전문가 양성과정 등 교육 사업을 통한 배출한 인재들이 향후 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으로 그 동안 큰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본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또한 향후에도 정책 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연구·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이여인터에 또 짐을 안기는 것이 아닌가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늘 한발 앞서 이주여성을 바라보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오롯한 인격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마음을 잘 알기에 첨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동안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감사드립니다.

2015. 2. 3.

감사 위은진

회계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귀중

2015.1.23.

본 감사인은 2014.1.1.부터 2014.12.31.까지 회계기간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자산현황과 현금 입출금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는 현금출납장, 입출금 전표, 예금통장을 통해 하였으며 감사결과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2014년 회계연도의 재정결산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비추어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김미경

일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한국염 (상임대표. 설립자)
김엘리 (공동대표. 이화여대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강혜숙 (공동대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이 사
〈등기이사 5명〉
한국염 (상임대표)
강성혜 (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장)
김상임 (가족치유전문상담가, 교육학박사)
이숭리 (전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전순란 (전우리밀 공동대표)
〈비등기 이사 7명〉
나영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장)
김은경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지부대표)
보얀델게르 (EBS 다국어뉴스 몽골어 진행자)
소경순 (대한여한의사회장)
심정란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협동총무)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대 교수)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감 사
위은진 (법무법인 민 변호사)
김미경 (세림세무법인 회계사)

지부대표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정승희)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이기선)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김　숙)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김은경)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강혜숙)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이둘녀)

서울이주여성쉼터
최진영 (소장), 홍계양, 유임숙, 홍매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강성의 (센터장), 동애화, 박세실, 김경은, 웬티현, 이해연, 황선영, 김미경

사무처
허오영숙 (사무처장), 한가은, 안은경, 송옥진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110-863 서울시 종로구 종로65길 16 sspm빌딩 4층
전화 02-3672-8988
팩스 02-3672-8990
상담전화 02-3672-7559
www.wmigrant.org wmigrant@naver.com